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4.06.19 / 제4호

MATCH PREVIEW

‘다시 한번 아시아를 향해’ 인천,
김천 잡고 코리아컵 8강 진출 노린다
‘포항전 4G 연속 무승’ 인천,
전적 열세 이겨내고 승리 도전한다
지난 강원 원정 반면교사 삼는 인천,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BLUEMAN INTERVIEW

프로 입성 2년 만에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최우진
“K리그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싶다”

ROOKIE INTERVIEW

‘당찬 영건’ 인천의 미래 김훈-이가람을 만나다

IUFC REPORTER REPORT

UTD기자와 함께하는 인천 지역 명소 탐방
우리가 몰랐던 동인천 이야기





INCHEON UNITED 2024 SQUAD

 김종민 전력분석관 PERFORMANCE ANALYST	 황근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진도형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1 민성준 GOAL KEEPER	 25 이범수 GOAL KEEPER	 29 김유성 GOAL KEEPER	 31 성윤수 GOAL KEEPER	 2 김건희 DEFENDER	 3 김연수 DEFENDER
 15 임형진 DEFENDER	 17 김준엽 DEFENDER	 20 델브리지 DEFENDER	 23 정동운 DEFENDER	 26 김성민 DEFENDER	 28 민경현 DEFENDER
 82 요니치 DEFEND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희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16 이가람 MIDFIELDER
 38 박진홍 MIDFIELDER	 40 음포쿠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1 제르소 FORWARD	 18 천성훈 FORWARD	 19 송시우 FORWARD
 27 김보섭 FORWARD	 34 하동선 FORWARD	 66 김세훈 FORWARD	 77 박승호 FORWARD	 88 이종욱 FORWARD	



INCHEON UNITED 2024 SCHEDULE

01R	03월 02일(토) 16:30	0	인천 : 수원FC	1	인천축구전용
02R	03월 10일(일) 16:00	0	서울 : 인천	0	서울월드컵
03R	03월 17일(일) 16:30	3	울산 : 인천	3	울산문수축구
04R	03월 30일(토) 14:00	2	인천 : 대전	0	인천축구전용
05R	04월 03일(수) 19:30	2	광주 : 인천	3	광주축구전용
06R	04월 06일(토) 16:30	0	인천 : 제주	1	인천축구전용
07R	04월 14일(일) 16:30	1	인천 : 대구	1	인천축구전용
08R	04월 17일(수) 19:00	1	인천 : 김해시청	0	인천축구전용
09R	04월 28일(일) 14:00	0	포항 : 인천	0	포항스틸야드
10R	05월 01일(수) 19:00	3	인천 : 전북	0	인천축구전용
11R	05월 05일(일) 16:30	2	김천 : 인천	2	김천종합
12R	05월 11일(토) 16:30	1	인천 : 서울	2	인천축구전용
13R	05월 18일(토) 16:30	0	대전 : 인천	1	대전월드컵
14R	05월 25일(토) 19:00	1	인천 : 광주	1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9일(수) 19:30	1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01일(토) 19:00	3	수원FC : 인천	1	수원종합
17R	06월 16일(일) 18: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18R	06월 23일(일) 18:00		인천 : 김천		인천축구전용
19R	06월 26일(수) 19:30		제주 : 인천		제주월드컵
20R	06월 30일(일) 19:0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05일(금) 19:30		인천 : 김천		인천축구전용
22R	07월 09일(화) 19:30		대구 : 인천		DGB대구은행파크
23R	07월 14일(일) 19:00		광주 : 인천		광주축구전용
24R	07월 21일(일) 19:00		인천 : 수원FC		인천축구전용
25R	07월 27일(토) 19:30		인천 : 서울		인천축구전용
26R	08월 10일(토) 19:30		제주 : 인천		제주월드컵
27R	08월 17일(토) 19:30		대전 : 인천		대전월드컵
28R	08월 24일(토) 19:30		인천 : 전북		인천축구전용
29R	08월 31일(토) 19:30		대구 : 인천		DGB대구은행파크
30R	09월 15일(일) 16:30		김천 : 인천		김천종합
31R	09월 22일(일) 19:00		인천 : 울산		인천축구전용
32R	09월 27일(금) 19:30		포항 : 인천		포항스틸야드
33R	10월 06일(일) 15:0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 경기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코리아컵 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GIMCHEON PREVIEW

‘다시 한 번 아시아를 향해’ 인천, 김천 잡고 코리아컵 8강 진출 노린다

글 = 지문호 UTD기자 (jimh2001102@naver.com)

인천이 아시아를 향한 두 번째 항로를 활짝 열어젖히고자 한다. 인천유나이티드는 6월 19일 수요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김천상무를 상대로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 홈경기를 치른다.

인천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펼쳐진 리그 11라운드 김천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빗속 혈투 끝에 2-2 무승부를 거뒀다. 인천은 이날 경기에서 불안한 수비 집중력으로 전반 5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선제 실점하였다. 뒤이어 후반 11분에는 역습 한 방에 무너지며 0-2로 차이가 벌어졌다. 그러나 인천은 포기하지 않고 골을 노렸다. 후반 32분, 정동윤이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PK를 얻어내었고, 이를 두고사가 깔끔히 마무리하며 추격골을 터뜨렸다. 후반 38분 조성환 감독은 오반석과 김도혁을 대신해 김동민과 김건희를 투입했다. 이 교체카드가 적중하며 인천은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김동민이 수비 지역에서 크게 띄워 올린 공을 김건희가 전방에서 헤딩으로 연결했다. 이 공은 상대 진영으로 다소 깊게 들어갔지만, 제르소가 상대 수비를 끝까지 압박한 끝에 공을 따냈고 골장 동점골에 성공했다. 이후 양 팀은 수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으나, 골키퍼들의 선방에 막히고 골대를 살짝 벗어나는 등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으며 경기는 2-2 무승부로 종료되었다.

인천은 5월에 치러진 6경기에서 2승 3무 1패의 성적표를 받았다. 승리한 경기는 10라운드 전북전과 13라운드 대전전이었고, 두 경기 모두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세 번의 무승부 경기는 11라운드 김천전과 14라운드 광주전, 그리고 15라운드 울산전이였다. 광주전에는 후반 추가시간 VAR 판독 끝에 주어진 '극장 PK'로 승점 1점을 따냈다. 울산전에는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후반 4분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으나 후반 37분 동점골을 헌납하며 무승

부를 거뒀다. 1패는 12라운드 서울전으로, 세트피스로 선제 득점에 성공했으나 이후 두 골을 내어주며 패배했다.

인천은 김천과의 역대 네 차례 맞대결에서 2승 1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김천 상무의 전신인 상주 상무와의 맞대결까지 포함하면 13승 8무 10패로 역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라인업에 큰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군경팀의 특성상, 역대 전적보다는 최근 맞대결 전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김천과의 직전 맞대결에서, 인천은 경기 초반의 불안정한 모습을 띠고 두 골 차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린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김천은 강현무, 김준홍, 원두재, 정치인 등 일부 주축 선수들이 7월 15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세대교체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인천과의 코리아컵 경기에 참가한다. 그러나 김천은 16라운드가 종료된 시점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기에, 인천은 장점을 앞세워 승리해야 한다.

인천은 작년 아시아 무대를 누볐던 영광을 다시 한 번 재현하고자 한다. 인천은 '2023-2024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준우승을 달성한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의 조별리그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것을 포함, 구단 역사상 첫 아시아 무대에서 조별리그 6경기 중 4승을 거두며 파란을 일으켰다. 다시 한 번 아시아에 검푸른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 그리고 창단 첫 우승의 별을 새기기 위해, 인천은 이번 코리아컵 16강전에서 필승을 다짐한다.



vs POHANG PREVIEW

‘포항전 4G 연속 무승’ 인천, 전적 열세 이겨내고 승리 도전한다

글 = 지문호 UTD기자 (jimh2001102@naver.com)

포항과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 승리를 노린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6월 23일 일요일 오후 6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 1 2024' 18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인천은 지난 4월 28일에 치러진 리그 9라운드 포항과의 원정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두었다. 8라운드 강원 원정에서 1-4 대패를 당한 후 절치부심으로 포항 원정 경기에 임했던 인천이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가 후반 14분에 발생했다. 제르소가 우측면에서 상대 공간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오베르단의 퇴장을 유도하며 인천이 순식간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후반 24분에는 민경현의 긴 크로스를 받은 정동윤이 골문 앞에서 제르소에게 공을 패스해주었고, 침착하게 골망을 흔드는 데에 성공했으나 오프사이드로 인해 무산되었다. 후반 42분에는 무고사가 집념 끝에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유효 슈팅을 날리는 데에 성공했으나 황인재의 캐칭에 막혔다. 인천은 계속 공격을 이어나갔으나, 수적 우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인천의 6월의 시작은 좋지 못했다. 6월 1일에 치러진 리그 16라운드 수원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1-3으로 패배했다. 이승우와 정승원에게 실점하며 0-2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으나, 후반 21분 무고사의 페널티킥 골로 추격했다. 그러다 경기 종료 직전 수비진의 뺑아폰 백패스 미스로 인해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인천은 1-3으로 무너졌다. 이 경기로 인천은 올 시즌 수원 FC와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를 당했다. 이 경기 직전에 치러진 리그

15라운드 울산전 홈경기에서는 올 시즌 통틀어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경기를 펼쳤기에 더욱 아쉬움이 느껴지는 경기였다.

인천은 포항과의 최근 4경기 맞대결에서 승리가 없다. '패-패-무-무'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포항전 직전 승리는 작년 4월 30일에 치러진 리그 10라운드 경기이다. 이 경기에서, 전반 추가시간 3분 김인성이 퇴장을 당하며 인천은 수적 우세를 얻었다. 이에 힘을 얻은 인천은 후반 11분 문지환의 중거리 원더골과 후반 21분 천성훈의 골로 2-0 완승을 거두었다. 이 승리 이전에 인천은 포항전 5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었다. 오랜 포항전 무승 징크스를 깬 인천은 직후 2경기 패배했지만 이후 FA컵 포함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던 경험이 있다. 인천은 다시 이와 같은 반전을 꿈꾼다.

16라운드 종료 시점 기준으로 인천은 8위, 포항은 3위이다. 중하위권 팀들의 승점차가 크지 않아 순위 변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포항도 다소 흔들리고 있다. 16라운드 김천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만 두 골을 내주며 1-3으로 패배했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경기 막판 집중력 결여가 뼈아팠던 포항이다. 박태하 감독 지휘 하에 쉽게 무너지지 않던 포항의 경기력에도 조금씩 틈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다. 인천은 이 점을 공략하여 포항전 무승 징크스를 끊어내고 좋은 흐름을 다시 만들어내고자 한다.



vs GANGWON PREVIEW

지난 강원 원정 반면교사 삼는 인천,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글 = 지문호 UTD기자 (jimh2001102@naver.com)

지난 8라운드 1-4 대패의 복수혈전을 준비한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6월 30일 일요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강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 1 2024' 2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인천은 지난 4월 21일 강원과의 리그 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뼈아픈 대량 실점 패배를 당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경기에서 인천은 전반 20분에 강원의 선취 득점이자 야고의 리그 첫 득점을 허용했다. 이후 전반 추가시간에만 두 골을 헌납하며 인천은 무너졌다. 절치부심으로 후반전에 임했지만, 강원의 화력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반 9분 야고에게 헤트릭을 내어주며 이날 경기 네 번째 실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인천은 끝까지 강원을 압박했고, 결국 후반 35분 제르소의 패스를 받은 무고사가 득점에 성공하며 영패를 면했다.

한편, 인천은 대거 패배 이후 맞대결에서 패배하지 않는 경험을 현재 진행형으로 쌓고 있다. 작년 리그 4라운드 광주 원정 0-5 대패 이후 치러진 광주와의 다섯 차례 맞대결에서 인천은 2승 3무로 아직까지 패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인천이 4점 이상 실점한 경기는 작년 리그 4라운드 이후 올해 8라운드 강원 원정이 처음이다. 광주와의 맞대결 무패 행진처럼, 인천은 강원과의 향후 전적에서도 패배하지 않으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는 강원과의 홈경기에 임한다.

인천은 강원과의 역대 전적에서 15승 7무 16패로 약소한 열세를 띠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무승부가 눈에 띄게 적다는 점이다. 인천과 강원 이 만나면 늘

은 확률로 승패가 나뉘었다. 여기에 더해, 올해의 강원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한 팀이 되었다는 점을 인천은 주의해야 한다. 윤정환 감독의 지휘 하에 강원은 올 시즌 내내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득점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이상현을 비롯해 2006년생 에이스 양민혁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의 공격력이 매서운 강원이다.

리그 16라운드 종료 시점 강원은 4위로, 선두와의 승점 차가 단 3점밖에 나지 않는다. 동시에 인천은 8위이고, 강원과의 승점 차는 9점이다. 인천은 더 많은 패배나 무승부를 거두지 않아야 한다. 중하위권의 순위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한 가운데, 인천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강원전 승리를 통해 분위기 반전과 함께 파이널 A 진출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한다. 한편,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단연 공격 화력 대결이다. 리그 16라운드 종료 시점 기준으로 무고사와 이상현이 각각 득점 1위와 2위를 나란히 달리고 있는 만큼, 득점을 기대해볼 만한 경기이다. 공격 화력에 힘입어, 인천은 동시에 수비 집중력을 끌어올려 실점을 최소화하여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5월의 인천은 단 1패만을 적립하며 이전보다 나아진 결과를 보였다. 20라운드 강원전은 리그 전체의 절반이 막 지난 시점이다. 6월 마지막 날 밤, 인천은 강원전 필승을 다짐하며 기분 좋게 7월을 맞이하고자 한다.



프로 입성 2년 만에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최우진**

K리그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싶다

글 = 손지호 UTD기자(thswlgh50@qjou.ac.kr)



팀에 합류하고 2번째 시즌 만에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한 젊은 선수가 있다. 그 주인공은 최우진이다. 최우진은 지난 시즌 인천에 입단해 단 2경기 출전 만에 리그에서 데뷔골을 터트리며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고 그 기대에 보답하는 듯 올해 매 경기 출전할 때마다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었고 있다. 이번 시즌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터트리고 있는 최우진을 UTD기자들이 만나봤다.



2년 차에 주축으로 발돋움 한 유망주

최우진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인천유나이티드에 입단했다. 고등학교 시절 출전하는 대회마다 주목받았을 정도로 유망한 선수였다. 그렇게 인천의 러브콜을 받고 프로에 진출했지만 모든 신인 선수가 그렇듯 프로 입성 첫 시즌에는 새로운 무대와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최우진도 약 9개월간 B팀에서 묵묵히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꿈꾸던 K리그 데뷔를 이뤘고 시즌 막바지까지 꾸준히 출전하면서 다음 시즌의 기대주로 팬들의 눈도장을 받았다.

그렇게 시즌이 새로 시작되고 최우진은 팬들의 눈도장이 틀리지 않겠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냈다. 지난 시즌 최우진은 리그에서 단 5경기 출전에 그쳤었다. 하지만 올해는 5월까지 총 12경기를 출전했다. 아직 시즌 초중반을 지나고 있지만 벌써 작년의 2배 이상의 기회를 받았다. 출전 경기 수에서 보아듯이 프로 2년 차 만에 팀 안에서 최우진의 입지는 매우 커졌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단기간에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프로 2년 차 만에 주축으로 자리 잡은 것에 대해 최우진은 “지난 시즌부터 팀의 측면 수비가 항상 고민거리라고 언급되어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작년 말부터 노력을 바탕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감독님과 코치님이 이번 시즌에도 더욱 저를 믿고 계속 기용을 해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진은 “사실 시즌 초반에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하지만 기회를 받아 경기를 계속 출전할수록 템포나 분위기에 적응했고 경기력도 함께 올라온 것 같다. 여기에 자신감까지 생겨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우진의 성장은 공식 매거진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최우진은 작년 11월 구단 공식 매거진에서 루키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됐었다. 그 이후 약 7개월 만에 공식 매거진의 메인 인터뷰 대상이 됐다. 구단 공식 매거진의 메인으로 선정된 소감을 물었다. 최우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인으로 오르게 감회가 새롭다. 믿고 써주시는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신 형들, 동료 선수들 덕분에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원발로 팀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다

지난 5월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한 골 장면이 나왔다. 코너킥 상황에서 델브리지의 완벽한 헤더 골이 터졌다. 델브리지의 헤더도 멋진 장면이었지만 델브리지의 머리에 정확히 향한 최우진의 코너킥이 더욱 주목을 끌었다. 지난 시즌 인천의 세트피스에 대해선 다소 아쉬운 평가가 많았다. 다양한 변칙 세트피스를 시도했지만 상대 골문을 위협하지는 못했고 세트피스가 팀의 약점으로 꼽혔다. 그래서 모두가 평소보다 더 놀란 득점 장면이었다.

이에 대해 최우진은 “세트피스 훈련을 할 때 잘 됐던 것들이 경기할 때 그대로 나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다. 솔직히 조금은 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북전 때 세트피스로 득점을 만들고 델브리지와 ‘나이스 킥’이라고 칭찬해 줬다”고 당시를 상황을 돌아봤다.

최우진은 왼쪽 측면에서 저돌적인 돌파 후 올리는 크로스나 정지된 상황에서 시도하는 킥 모두 상대를 자주 곤란하게 만들었다. 시즌 초반과는 다르게 전담 키퍼로 지정될 만큼 팀 내에서도 킥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우진에게 날카로운 원발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 최우진은 “특별히 비결은 없다.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코너킥으로 시즌 첫 도움을 기록했는데 그때 공을 찼던 감각이 너무 좋았다. 이후에도 그 당시 감각을 살려서 치려고 노력하다 보니 좋은 킥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겸손하게 이야기했다.

최우진의 노력은 이어진 경기에서도 빛을 발휘했다. 12라운드 서울과의 홈경기와 13라운드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달아 코너킥으로 도움을 올렸다. 인천이 5월에 넣은 9골 중에서 3분의 1인 3골이 최우진의 원발에서 시작됐다. 최우진의 활약으로 팀의 약점이었던 세트피스가 팀의 강점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최우진이 5월에 도움을 기록했던 장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보통 코너킥은 골문 쪽으로 공이 감기도록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우진의 킥은 모두 골문 바깥으로 향한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그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최우진은 “공의 궤적이 바깥으로 향하면 뒤에서 달려오는 선수들이 헤딩 타이밍을 맞추기 쉽고 상대 골키퍼도 위치를 잡기 어렵다. 코치님의 특별 주문이었고 세트피스 훈련할 때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축구에서 팀이 세트피스를 처리할 땐 사전에 약속된 부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키퍼, 선수들, 코칭스태프까지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더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최우진은 “세트피스에서 팀 구성원 전체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담 키퍼로 정해지고 나서 팀의 세트피스 담당이신 박용호 코치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자세한 얘기는 밝힐 수 없지만 훈련할 때나 경기 전,후로도 의견을 나누고 피드백 시간을 가진다”고 이야기했다.



세트피스 성공은 팀 구성원과의 많은 소통 덕분

이어 최우진은 “코치님 외에도 훈련이나 경기에서 세트피스가 성공하면 선수들끼리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자신감을 돋운다. 세트피스가 계속 성공하니까 선수들끼리도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다. 스스로 더 연구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도 된다. 특별히 세트피스 움직임에 대해 선수들끼리 얘기하는 부분은 없지만 성공했을 때 감각을 살려서 자신감 있게 킥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시즌 구단 공식 콘텐츠 <피치 위에서>를 보면 세트피스가 성공한 날에는 박용호 코치에게 더 많은 박수를 쳐주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 이러한 이유인지 최우진도 세트피스를 성공한 뒤 득점한 선수에게 가기보다는 코칭스태프가 있는 벤치로 제일 먼저 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최우진은 “세트피스를 성공하고 감독님, 코치님께 칭찬을 받으러 제일 먼저 간다. 서로 많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으로 몸이 움직인 것 같다. 벤치로 가면 꼭 안아 주시면서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지난 13라운드 대전과의 원정 경기가 끝나고 중계방송을 통해 재밌는 일화가 전해졌다. 경기 종료 후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 문지환이 최우진과 내기를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최우진에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물었다. 최우진은 “시즌 시작하기 전에 (문)지환이 형이 이번 시즌에 공격포인트를 7개 이상 하면 쇼फल에서 100만 원어치를 사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대신 못하면 제가 50만 원어치를 사라고 했다”며 내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우진은 “보통 선수들끼리 커피 내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처음이었다. 저는 자신 있기도 했고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내기를 승낙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우진은 이날 경기로 내기로 정한 공격포인트 7개 중 절반에 가까운 3개를 채웠다. 문지환이 초조해하지 않냐는 물음에 최우진은 “지금도 내기로 지환이 형과 계속 얘기를 나눈다. 제가 지금까지 공격포인트를 3개 기록했기 때문에 지환이 형이 조마조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실제로 제가 도움 3개째 올리니까 지환이 형이 큰일 났다고 이야기 했다”고 일화를 전했다.

팀을 이끌고 있는 조성한 감독도 선수 시절 측면 수비수로 활약했었다. 같은 포지션이었던 만큼 조성한 감독도 팀 내 측면 수비수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세한 조언이 가능하다. 실제로 그런지 물어보니 최우진은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다. 항상 수비할 때 강하게 부딪히라고 말을 많이 해 주신다. 또한 수비 위치나 신경 써야 하는 세세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해 주신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시즌 목표는 K리그 시상식 후보에 오르는 것

최우진은 이번 시즌 활약을 인정받아 지난 4월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올랐었다. 아쉽게 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지만 또다시 영플레이어상 수상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4월과는 다르게 5월 한 달 동안 도움 3개와 13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달에 비해 더욱 경쟁력

을 갖췄다. 최우진은 “지난 4월에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들었으나 받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웠다”며 “아무래도 선수라면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래서 이번 5월 영플레이어상은 욕심이 난다”고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다.

팬들이나 매체에서는 5월에 최우진이 보여준 활약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최우진은 생각이 달랐다. 최우진은 “5월 동안 저의 경기력에 대해 100% 만족하진 않는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시즌 초반에 비해 발전된 모습으로 경기를 치렀다고 생각한다”고 5월의 최우진을 평가했다. 이어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매 경기에서 배우고 느끼는 점이 많고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즌 활약을 바탕으로 인천의 주축 측면 수비수를 넘어 차기 국가대표 측면 수비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많아졌다. 실제로 최우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왼쪽 윙백이 되고 싶다”고 다른 인터뷰에서 밝혔었고 그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간 셈이 됐다. 프로 2년 차 만에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최우진은 “그 말을 들으면 경기장 밖에서 팬들이 보는 제 모습이 좋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분도 좋고 너무 감사하다”며 “동기부여가 크다. 지금보다 발전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작년과는 많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 이번 시즌 목표에 대해 물었다. 최우진은 “팀적으로는 3년 연속으로 파이널 A에 오르는 것이다. ACL도 다시 한번 나가고 싶다”며 “개인적으로는 공격포인트 쌓는 것도 좋지만 시즌이 끝나고 어떤 부문이든 시상 후보에 올라서 K리그 시상식에 가보고 싶다. 가서 상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매거진을 통해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최우진은 “매번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제 이름을 크게 불러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응원 덕분에 힘들어도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한결 같이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보답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메시지를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2024 시즌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 무렵, 여름을 맞아해 뜨거워진 태양 곁에서 목표를 향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다. 이제는 인천유나이티드의 이름을 달고 필드 위를 누비는 루키 김훈, 이가람의 이야기다. 인천의 미래를 짊어질 '영건'들의 당찬 다짐을 UTD기자단과 함께 들어보자.

이지영 UTD 기자: 안녕하세요. 이번 매거진 6월호에서는 김훈, 이가람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팬분들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훈: 안녕하세요. 인천유나이티드 미드필더 김훈이라고 합니다.
 이가람: 저는 인천유나이티드 미드필더 이가람입니다.

시즌 중이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훈: 입단후 단체 훈련과 개인 훈련을 계속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람: 저도 훈련하고 개인 운동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 보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가 볼게요. 두 분은 인천유나이티드 U-18 팀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한 유스 출신인데, 두 분의 고교 시절에 대해 들어보고 싶어요.
 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어서 덕

분에 경기력도 올리고 실력도 많이 향상 시킬 수 있었어요. 2학년, 3학년 때는 선발로 뛰다가 다치는 바람에 조금 힘들었어요.
 가람: 저는 1학년 때 부상 때문에 1년을 쉬었고, 2학년 때 천천히 몸을 만들며 복귀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안 다치고 팀에 무사히 합류해 활동했던 것 같아요.

대건고 재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요?
 훈: 저는 1학년 때 뛰었던 K리그 주니어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FC서울 U-18 오산고와의 경기였는데,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막판에 골을 넣었거든요. 덕분에 팀이 이길 수 있어서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가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대회요.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경기였던 만큼 제게 조금 더 의미가 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두 분은 대건고 유니폼에서 인천유나이티드 유니폼으로 갈아입게 된 순간을 기억하나요?
 훈: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꿈에 그리던 인천유나이티드 유니폼이기도 했고, 프로에 가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믿기지 않았고,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가람: 저도 처음에 인천유나이티드에 입단한다는 사실이 안 믿어졌는데, 유니폼을 입고 나니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웃음) 뿌듯하기도 했고 힘들었던 시간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팀 내에서 본인이 이것만큼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강점을 소개해 주세요.
 훈: 저는 골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려는 마음가짐이 저만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가람: 저는 공격에 있어서 적극성과 다부진 플레이, 헌신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 모두 U-18 유스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덕에 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 같아요. 두 분에게 인천유나이티드는 어떤 의미인가요?
 훈: 제 꿈과 같아요. 그리고 고향 같은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이 있어요.
 가람: 제 여자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믿고 의지하면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잠시 개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가람 선수는 최근 대한민국 U19 대표팀 명단에 발탁되어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가람: 제가 잘해서 뽑힌 것보다는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고 저를 많이 믿어주셔서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가서 제 실력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축하를 받았을 거 같아요. 반응이 어땠나요?
 가람: 구단 SNS에 대표팀 발탁 소식이 올라왔는데, 축하 메시지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다 답변해 드리면서 무척 감사했어요.

많은 축하를 받은 만큼, 팬분들께 대회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전해주세요.
 가람: 경기에서 제가 돋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팀을 돋보이게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후 마지막에 경기가 끝나는 순간에는 제가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훈 선수는 지난 5월 25일 광주전에서 하이네켄컵 일일 점원 행사에 참여했어요.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훈: 한 팬 분이 행운 부적이라고 그림이 그려진 작은 카드를 주셨는데, 잘 받아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뿐만 아니라 김훈 선수는 인천 구단 U12, U15, U18을 모두 거쳤는데, 그만큼 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 거 같아요. '포스트 김훈'을 꿈꾸는 유스 후배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훈: 힘든 일이라 잘 안 풀리는 날도 있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이겨내고 계속 축구를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유소년 지도자 코치님들도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지도자 코치님들 말 잘 듣고 훈련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두 분은 어떻게 축구를 시작했나요? 어떠한 계기가 두 분을 인천유나이티드로 이끌었는지 궁금해요.
 훈: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TV를 보다가 우연히 2002년 한일 월드컵 재방송을 봤는데,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에서 전국민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

았어요. 이후 '나 축구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바로 어머니께 가서 축구시켜달라고 하면서부터 축구를 시작했어요.
 가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공 차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가 축구부 팀을 다리고 있었는데 저도 가고 싶어서 부모님과 같이 얘기하고 그 팀을 찾아가면서 축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집돌이'라고 들었어요. 두 분의 MBTI가 궁금해지는데요?
 훈: 저는 ISFJ요. 누워서 핸드폰만 하는 걸 좋아해요.
 가람: 저도 ISFJ요. (두 분 그럼 성향이 비슷해서 잘 맞겠어요) 아니요. 안 맞아요. (웃음)

어느덧 인터뷰도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축구 팬들에게 বল리고 싶은 별명이 있나요?
 훈: 제가 메시를 좋아하거든요. 리틀 메시 하겠습니다.
 가람: 저는 팀에 행운을 가져다줄 수 있는 럭키보이로 불리고 싶어요.

프로 첫 시즌, 목표와 다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훈: 가장 먼저 데뷔전을 치르는 것어요. 그다음에는 데뷔골까지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람: 저도 이른 시일 내에 데뷔전을 치러서 공격 포인트를 쌓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에 주시는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훈: 꼭 이른 시일 내에 데뷔해서 인천유나이티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또 구단 U12, 15, 18을 모두 거친 만큼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람: 지금까지 출전한 적은 없지만, 꼭 열심히 해서 경기장에 나서는 순간까지 보여드릴 테니 응원 열심히 해 주시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TD기자단과 함께하는
인천 지역 명소 탐방

우리가 몰랐던 동인천 이야기

인천유나이티드의 홈 경기장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피치와 관중석이 근접하여 선수와 팬이 서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인천 축구의 성지이다. 어느덧 인천광역시외의 명소로 자리 잡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근처에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인천의 다른 명소들 역시 존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0년 이상 가게를 운영했던 지역 우수 소상공인을 백년가게로 선정했는데, 우수한 백년가게들이 경기장 주변에도 자리 잡고 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지난 3월 21일 백년가게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천 지역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구단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에 이어서, UTD기자단은 축구장과 멀지 않은 위치에 숨어있는 인천의 명소 및 백년가게 식당을 직접 방문한 뒤 팬들에게 소개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 글 = 이환희, 이지우 UTD기자 / 사진 = 이다솜 UTD기자



명소 #1

배다리 현책방 거리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18-10

식당을 찾기에 앞서 UTD기자단은 경기장 주변 명소를 먼저 찾아가기로 했다. 그 첫 장소는 동인천역 근처에 위치한 '배다리 현책방 거리'였다. 이 지역은 본래 개항 이후 개항장 지역을 빼앗긴 조선인들이 모여 생긴 마을이었다. 과거에는 배를 이용해야만 마을을 건널 수 있었는데, 배를 대는 다리가 있었다고 해서 '배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광복 이후로 책을 팔던 사람들이 자연스레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현책방 거리가 탄생했다고 전해진다. 동인천역과 도원역 사이에 위치한 배다리 현책방 거리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기준 도보 15분 정도 떨어져 있다.

거리에 다다르니 책방들이 간판에서부터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아늑한 옛 감성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서점은 책을 판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안식처이다. 백화점에 있는 대형 서점이나 거리에 있는 세련된 개인 서점도 물론 훌륭하지만, 현책방은 그들과 차별화되는 이들만의 매력이 있다. 현책방 안으로 들어가니 넓지 않은 공간에 목재 책장들이 가득했고 그 안에 책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다. 고전 소설, 영어 원서, 참고서 등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정겨운 종이책 냄새를 뿜어내고 있었다. 축구장에서 일상에 없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면, 책방에서는 일상에 없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배다리 현책방 거리는 꼭 책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드라마 <도깨비>의 한 장면이 따뜻한 색감을 가진 배다리 현책방 중 한 곳을 배경으로 촬영되기도 했다. 현책방들을 지나 조금 더 가면 아치형 벽돌 입구가 있는 '배다리 아트스케이 1930'이라는 공간도 있다. 이곳은 과거 여인숙이었던 공간을 새롭게 바뀌서 카페와 작은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북층으로 지어진 미술관에는 미술품이 전시됐고, 2층에는 누워서 쉴 수 있는 테라스도 있었다. 일상에서 부족한 문화생활과 여유 있는 휴식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이었다.



명소 #2

담동성당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50번길 2

배다리 현책방 거리를 꼭 돌아본 후, UTD기자단은 약 13분 정도를 걸어 신포동 쪽으로 이동했다. 해당 위치에 도달하여 가톨릭회관 앞 언덕을 올랐더니 또 다른 명소인 '담동성당'을 볼 수 있었다.

담동성당은 인천 천주교 역사의 시작을 상징하는 곳이다. 1889년 프랑스의 빌렘 신부가 초대 본당 신부로 부임한 이후 1897년 코스트 신부의 설계로 고딕 양식의 성당을 세웠는데, 그곳이 바로 담동성당의 시초이다. 이후 1937년에 늘어난 신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건물을 증축했는데, 이를 계기로 현재의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이 탄생했다. 담동성당은 1981년 근대 건축물로서의 가치와 역사성을 인정받아 사적 287호로 지정되었다.

언덕을 지나 처음 마주한 성당은 하나의 건축물로서 아름답다는 인상이 강했다. 인천 도심에서 작은 언덕 하나만 올랐을 뿐인데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게 이색적이었다. 담동성당의 건물이 더 특별한 이유는 전국에 두 군데뿐인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이기 때문이다. 성당이 높은 곳에 위치해서 낮에는 넓게 펼쳐진 하늘을 배경으로 성당을 볼 수 있고, 밤에는 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담동성당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신포동 일대가 넓게 보이는 성당 반대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시민들도 있었다.



식당 #1

신포아채치킨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49번길 25 제5호

명소를 돌아본 후 UTD기자단은 식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UTD기자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신포국제시장(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49번길)이었다.

신포동을 상징하는 장소 중 하나인 신포국제시장은 담동성당과 맞닿아 있다. 개항 이후 외국인이 인천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상권으로부터 만들어진 신포국제시장은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상설시장이다. 20세기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고, 2002년 현대화 작업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전통적 분위기를 향유하고 있는 시장 내부에 UTD기자단의 목적이 있었다. 매력적인 아채치킨을 만드는 식당, '신포아채치킨'이 바로 그곳이다. 1991년 우리집양념통닭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업했고, 2002년부터 현재의 상호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2022년에는 백년가게로 선정되면서 그 유명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게 내부에 들어가 보니 꽤 넓고 쾌적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른 저녁 시간부터 주문이 많이 들어왔고, 어느새 가게 전체가 손님으로 꽂혔다. 북적북적한 분위기 속에서 메뉴를 고심하던 UTD기자단은 상징적인 메뉴인 아채치킨과 오징어튀김을 주문했다. 시킨 메뉴가 나오기 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양배추샐러드가 먼저 나왔다. 샐러드를 먹으며 잠시 대기한 끝에 치킨, 오징어튀김이 순서대로 식탁에 차려졌다.

아채치킨은 상호에서도 드러나듯이 신포아채치킨의 주력 메뉴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치킨과 달리 기름기가 덜하고 고소한 맛이 특히 매력적이었다. 여기에 튀김옷이 바삭하여 식감도 돋보였다. 치킨 고유의 맛과 한국의 정서를 함께 담은 시장식 옛날 치킨의 느낌을 잘 살린 메뉴였다. 아채치킨도 훌륭했지만, 오징어튀김 역시 인상적이었다. 큰 오징어를 아낌없이 넣어 상당한 양을 자랑한 오징어튀김은 계속 손이 가게 만드는 마성의 음식이었다.

UTD기자단이 먹은 메뉴 외에도 신포아채치킨에는 닭강정, 왕새우튀김, 골뱅이소면이 있다. 닭강정은 신포동 상권 자체에서 특히 유명한 음식이기도 하고, 신포아채치킨 안에서는 양념치킨의 역할도 겸한다. 왕새우튀김은 오징어튀김과 마찬가지로 큰 크기를 자랑하는 튀김이다. 골뱅이소면은 전반적으로 튀김이 많은 메뉴 안에서 색다른 맛을 가미할 수 있는 이색적인 선택지이다.



식당 #2

인천맥주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15번길 41 1층

신포아채치킨에서 식사를 마친 후 UTD기자단은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길에 때마침 블루마켓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서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면서 소화도 충분히 시켰다. 블루마켓 플래그십 스토어와 더불어 6월 13일에 오픈한 인천유나이티드 카페까지 신포동 상권에 자리 잡으면서 인천유나이티드의 푸르고 검은 물결은 어느새 동네에 녹아들었다.

블루마켓 구경을 마친 후 UTD기자단은 호프집 '인천맥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해당 가게는 2016년 송도에서 칼리가리 브루잉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업했고, 2020년부터 인천맥주로 상호를 변경했다. 인천맥주는 현재 인천의 대표적인 수제맥주 양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게 자체에 양조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매장에서 직접 먹는 것 외에도 방문하여 병맥주를 구매할 수 있다.

가게에 방문한 UTD기자단 3인은 각자 한 종류씩 맥주를 주문하여 맛을 느껴보았다. 개항로 라거(도수 4.5%)는 인천맥주의 대표 메뉴로, 지역을 대표하는 도로운 개항로의 이름을 딴 로컬 맥주이다. 직접 마셔본 개항로 라거는 유명세에 걸맞게 시원하면서도 호불호 없이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깔끔한 맛을 자랑했다. 인천맥주를 방문했을 때 입문으로 가장 추천해 보고 싶은 맥주였다.

바나나화이트(도수 5.0%)는 화이트 에일로 분류되며, 은은한 바나나 향이 첨가되어 향긋한 느낌을 자랑한다. 과일맥주의 성향이 강한 편으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부드러운 느낌이 돋보였다.

몽유병DIPA(도수 8.0%)는 과일 향이 나는 IPA로, 풍부한 느낌을 주는 편이다. 유명 맥주 브랜드 중에는 불량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다른 맥주보다 비교적 고가에 팔리고 있지만 그만큼 이색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독특한 풍미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맥주였다.

본 기사에서 소개한 맥주 외에도 인천맥주에는 다양한 맥주가 있었다. 각 양각색의 매력을 발휘하는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인천맥주에서 보내는 시간은 충분히 매력적이라 느껴졌다. 동인천역 일대에는 이번 소개한 곳을 비롯하여 다양한 명소와 맛집이 숨어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동인천역 부근에서 또 다른 추억을 만드는 것도 색다른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IUFC

BLUE MARKET

인천유나이티드 블루마켓 운영 안내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GATE-W7 옆 2층

경기 시작 2시간 30분전

경기 종료 30분 운영

경기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 하프타임 매장 이용가능

온라인 블루마켓



incheonutdmarket.com

블루마켓 플래그십 스토어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6-3
(신포 문화의 거리)

SINCE 2003



IUFC TV

우리가 알지 못했던
2024시즌 인천유나이티드의
피치 위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치 다큐멘터리 시리즈
피치 위에서를 시청해보세요!

YouTube

인천유나이티드 피치 위에서 |

